

#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기태  
(삼육대학교)

송진영  
(성결대학교)

정종화\*  
(삼육대학교)

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죽음불안의 영향력과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91명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거노인의 죽음과정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의 존재상실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거노인의 사후결과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들의 죽음불안과 그의 하위요인 중 죽음과정의 불안과 존재상실의 불안은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인 반면, 사후결과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 셋째, 독거노인의 우울은 존재상실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우울은 죽음과정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의 감소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주요 용어: 독거노인, 죽음불안, 생활만족도, 우울, 매개효과

본 연구는 2017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저술된 연구물임.

IRB No. 2-1040781-AB-N-01-2017068HR, 삼육대학교

\* 교신저자: 정종화, 삼육대학교(welfare36@daum.net)

■ 투고일: 2017.10.31    ■ 수정일: 2017.12.29    ■ 게재확정일: 2018.1.4

## I. 서론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인구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 7.2%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불과 17년만인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7,257,288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인구 대비 14.0%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행정자치부, 2017).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2016년 기준으로 14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에 225만명, 2030년에 282만명, 2035년에 343만명 등 매우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6).

노년기에는 건강의 위협,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울감 등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노년기의 발달과업 중 죽음불안에 대한 태도와 우울 등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의 요인으로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에서의 만족감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OECD가 조사한 '2017년도 삶의 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에서 29위로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25위, 2015년 27위, 2016년 28위로서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OECD, 2017). 이는 우리사회의 경제수준이 세계 12위로서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은 최하위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당면한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독거노인들은 다른 연령대나 비독거 노인에 비해 정신적, 정서적 만족감 측면에서 많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 상태로 인해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고 나타났다(박지영, 2007; 서인균, 이연실, 2015). 이와 같은 노인문제로 인해 노인들은 무료하고 의미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지원이 적어 고독감과 불안감이 높아지며, 결국에는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이봉재, 오윤진, 2008).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질병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되고,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접어든 노인들은 다른 시기보다 불안정도가 높다(정영민, 2016). 최근 죽음불안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죽음불안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영민, 2016; 남기민, 정은경, 2011; 김성희, 송양민,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33.1%는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독거노인의 경우 43.7%가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또한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고통스러운 임종에 대한 두려움 등 죽음불안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미나, 2003; 오미나, 최외선, 2005; 김민아, 양지훈, 2015; 김남희, 김지혜, 이해림, 윤명숙, 2016). 우울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조성자, 김병석(2014), 김홍남, 차은진, 김경호(2017), 최창석(2017) 등은 노인의 우울이 심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이 노인의 죽음불안, 우울,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단순히 탐색하거나 죽음불안이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단편적인 관계가 대부분으로서, 노인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본 연구주제와 상이한 정영민(2016), 남기민과 정은경(2011), 김성희와 송양민(2013) 등 제한적이며, 따라서 독거노인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에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고자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들이 죽음불안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존의 제한적인 영향관계를 넘어서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요인변수인 매개변수로서 우울을 검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도가 가능한 것은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이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죽음불안과 우울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

결과의 불안 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독거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김주연(2017)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나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으로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는 가구형태를 노인단독가구라고 하였다. 민기채(2011)는 배우자, 가족 및 친척 등 어느 누구와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세대인 노인을 노인단독가구라고 하였다.

일반적 생활만족도의 정의는 개인의 삶의 수준과 의식주 충족 등 자산 및 소득 수준과 유병률, 사회관계망 지표 등이 객관적 지표로서 개개인의 생활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Onishi et al., 2010; Sundriyal & Kumar, 2013). 그러나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 스스로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인식하며, 노화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 환경적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는가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행감복, 성취감, 복지감, 기대와 보상감, 욕구충족과 관련된 종합적인 만족감을 뜻한다(양희, 2017).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나이,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과거 직업, 건강상태, 가정 내 역할, 사회 심리적 특성, 생활수준, 여가활동, 종교와 같은 매개변수와

관계가 있다(이현심, 남희수, 2010; 권양순, 송정아, 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는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직업유무, 건강상태, 월수입, 독거여부, 생활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과 ADL, iADL과 같은 일상생활능력 등의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희 등, 2015). 또한, 배우자가 있거나,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의 욕구가 높을수록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신경안, 2015). 독거노인보다 비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았는데(윤정애, 강지수, 배명진, 이나영, 이채민, 전우진, 2016),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 스트레스와 우울은 노인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의 악화를 가져와 노년의 부정적인 삶을 초래한다(조성자, 김병석, 2014). 남기민과 정은경(2011)은 여성독거노인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사회활동을 할수록,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과 죽음불안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2. 죽음불안

죽음불안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정영민(2016)은 자기존재가 상실되는 두려움에 대한 존재상실의 불안,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에 대한 죽음과정의 불안, 죽음 후의 두려움 대한 사후결과의 불안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노년기는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죽음불안은 노년기에 성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김서희, 송영민, 2013). Shelly(2012)는 죽음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라는 죽음의 보편성,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죽음의 필연성,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어느 장소에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편재성을 가지므로 죽음불안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서혜경(2007), 김연숙과 김지미(2009), 조계화와 송병숙(2012)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성별, 종교, 건강수준, 나이,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인데 이들은 판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김남희 등(2016)은 죽음의 보편성은 인정하나 자신의 죽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이성적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심리적, 감정적으로는 죽음을 거부하는 등과 시대의 변화와 연구의 시기

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덕희와 이승민(2007)은 '가족요인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죽음불안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김연하(2016)는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준 요인은 우울, 가족지지, 사회적 연락망, 가족주의 가치관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죽음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 사회적 차원에서 통합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 3. 우울

Sundriyal과 Kumar(2013)는 우울이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말하는 근심, 무력감, 침울함, 무가치함과 같은 기분장애라고 하였다. 우울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이며, 감각 또는 신체장애가 있을 때 나타나기 쉬우므로 증제가 필요한 심리적 장애이다. 노인의 우울은 심리적 고통인 고독감, 좌절감, 의욕상실, 증오심 등을 경험하며 신체적으로는 체중감소,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김경호, 김지훈, 2008). 독거노인의 이러한 경험은 우울증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자살의 가능성까지 있음을 말하고 있다(박지영, 2007). 남기민과 정은경(2011)의 연구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었지만, 이웃이나 친구의 지원 부족의 원인으로 인하여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김문옥(2014)은 독거노인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소외된 고독한 삶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안을 경험하면서 부정적 정서와 심리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더 우울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서연숙(2015)은 무배우자나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장애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을 겪고 있는 경우 우울이 증가하나, 사회적 지원과 관계망이 좋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 4. 선행연구

#### 가.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정영민(2016)의 연구는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남기민과 정은경(2011), 박선애와 허준수(2012)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성희와 송양민(2013)의 연구에서 노인의 죽음불안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죽음불안은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낮게 나타났다. 하재민(2016)의 연구에서는 죽음불안의 하위요소 중 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 중에서 죽음과정의 불안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죽음불안 중에서도 죽음과정의 불안을 더 느끼고, 그 이유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죽음불안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임승희, 노승현, 2011; Hickson et al., 1988; Damm, 1993).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년기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유의한 부정(-)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죽음불안의 경감은 현재 노인들의 생활만족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나. 죽음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

여인숙과 김춘경(2005)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죽음불안과 우울의 관계는 정적(+ )인 영향관계가 있었으며, 죽음으로 인하여 고립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고통스러운 임종에 대한 두려움 등 죽음으로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묘숙(2010)의 연구에서도 죽음불안이 우울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죽음불안이 우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오미나(2003), 오미나와 최외선(2005)의 연구에서는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존재상실에 대한 죽음불안이 우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재가노인의 경우 사후결과에 대한 죽음불안이, 시설노인은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아와 양지훈(2015)의 연구에서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김남희, 김지혜, 이해림, 윤명숙(2016)의 연구에서는 빈곤 노인의 죽음불안이 낮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죽음불안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노인의 죽음불안은 우울을 높이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노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죽음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우울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다. 우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김홍남, 차은진, 김경호(2017)는 노인의 우울이 심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낮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최창석(2017)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우울이 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낮다는 사실을 검증하였으며, 이는 박선희 등(2015), 사영화와 조성제(2014), 이현심과 남희수(2010), Mynatt(2004), Onishi 등(2010)과도 동일한 결과였다. 조성자, 김병석(2014), 박선애(2016)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박재홍과 정지홍(2010)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노인기의 대표적인 정신건강인 우울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죽음불안이 우울을 증가시키고 우울이 생활만족도를 낮춘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은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유추하고, 이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배우자, 자녀, 친족 등 누구와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노원구에 있는 xx어르신돌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조사로서 2017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 노원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40명을 표본으로 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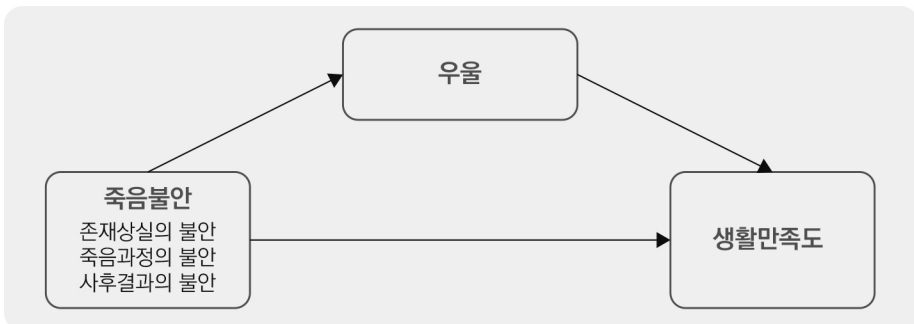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노원구에 있는 xx어르신돌봄지원센터의 센터장의 협조를 얻어 본 연구자와 사전에 설문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침서에 대한 교육받은 센터에 근무하는 조사 경험이 있는 직원, 그리고 연구 보조자 10명이 직접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조사목적과 취지를 설명 한 후 일대일 개별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독거노인들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내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는 설문지의 내용을 읽어주고 응답을 기재하도록 하는 형식을 병행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300부 중에 조사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292명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연구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생명윤리법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본 연구계획서의 내용과 설문지 등에 대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 2-1040781-AB-N-01-2017 068HR,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심의 절차를 통과하였다.

## 2.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 등을 하위 요인으로 하는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위의 연구모형에 토대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 2.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우울은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 3. 연구도구

#### 가.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Neugarten 등(1961)이 개발한 LSI-A척도를 최윤진(2009)이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18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합을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 중 4, 5, 10, 11, 12, 13, 17, 18번은 역으로 되어 있어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윤진(2009)의 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92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867이다.

#### 나. 독립변수: 죽음불안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죽음불안은 Collett와 Lester(1969)가 제작한 FODS(Fear of Death Scale)를 서혜경(1987)이 한국어로 변안, 오미나(200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죽음불안 척도는 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 결과의 불안이라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합을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오미나(2003)의 연구에서의 죽음불안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81, 존재상실의 불안=.81, 죽음과정의 불안=.82, 사후결과의 불안=.7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인 Cronbach  $\alpha$ 는 죽음불안=.864이며, 죽음불안의 하위요인 중 존재상실의 불안=.756, 죽음과정의 불안=.750, 사후결과의 불안=.758 이다.

#### 다. 매개변수: 우울

노인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Yesavage와 Sheikh(1986)가 개발한 15문항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기백석(1996)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Version, SGDS-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며 5점은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합을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 중 1, 3, 4, 5, 6, 9, 10, 13, 14, 15번은 역으로 되어 있어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백석(1996)의 연구에서의 우울에 대한 Cronbach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864이다.

### 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0.0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변수 간의 관계는 피어슨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력 및 그들 간에 우울의 매개효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방법은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MacKinnon 등(2002)이 제시한 Sobel 검정 값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때 산출된  $z$ 값이  $z > 1.96$  또는  $z < -1.96$ 을 만족하면, 우울은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81.5%였다. 연령대는 70대 후반이 53.1%였고, 70대 초반이 25.0%, 80세 이상이 17.8%, 60대 후반이 4.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41.4%였고, 무학이 25.7%, 중졸이 20.9%, 고졸이 8.6%, 대졸이 3.4% 순으로 분포되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65.1%였다. 독거기간은 '10년~20년 미만'이 28.8%, '20년~30년 미만'이 24.0%, '10년 미만'이 18.8%, '30년~40년 미만'이 17.1%, '40년 이상'이 11.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26.4%였고, 3명이 18.8%, 자녀가 없거나 1명 또는 4명이 각각 15.8%, 5명 이상이 7.5%를 차지하였다. 가족 교류빈도는 월 3~4회가 40.4%였고, 년 3~4회 27.4%, 전혀 없는 경우가 24.0%, 주 3~4회가 7.2%, 거의 매일 접촉하는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수는 1명이 32.5%, 2명이 25.7%, 친구가 없는 경우가 25.0%, 3명 이상이 16.8% 순으로 분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92명)

변수명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성	238	81.5
	남성	54	18.5
연령대	65~69세	12	4.1
	70~74세	73	25.0
	75~79세	155	53.1
	80세 이상	52	17.8
학력	무학	75	25.7
	초졸	121	41.4
	중졸	61	20.9
	고졸	25	8.6
	대졸	10	3.4
종교유무	없음	102	34.9
	있음	190	65.1

변수명	구분	빈도(명)	백분율(%)
독거기간(년)	10년 미만	55	18.8
	10년~20년 미만	84	28.8
	20년~30년 미만	70	24.0
	30년~40년 미만	50	17.1
	40년 이상	33	11.3
자녀수	0명	46	15.8
	1명	46	15.8
	2명	77	26.4
	3명	55	18.8
	4명	46	15.8
가족교류빈도	5명 이상	22	7.5
	전혀 안함	70	24.0
	년 3~4회	80	27.4
	월 3~4회	118	40.4
	주 3~4회	21	7.2
친한 친구수	거의 매일	3	1.0
	0명	73	25.0
	1명	95	32.5
	2명	75	25.7
	3명 이상	49	16.8

## 2. 주요 변인들의 특성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20~100의 범위에서 평균이  $49.90 \pm 9.66$ 으로서 조금 낮은 수준이었으며, 매개변수인 우울은 15~75의 범위에서 평균이  $47.25 \pm 8.56$ 으로서 보통 정도였다. 독립변수인 죽음불안은 20~100의 범위에서 평균이  $60.68 \pm 9.44$ 로서 보통이었다. 죽음불안의 하위요소 중 존재상실의 불안은 7~35의 범위에서 평균이  $20.03 \pm 4.02$ 로서 보통 수준이었으며, 죽음과정의 불안은 7~35의 범위에서 평균이  $24.65 \pm 4.25$ 로서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사후결과의 불안은 6~30의 범위에서 평균이  $16.0 \pm 3.85$ 로서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특성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생활만족도	292	20	100	49.90	9.66	-.114	.411
우울	292	15	75	47.25	8.56	.258	.266
죽음불안	292	20	100	60.68	9.44	-.063	-.344
존재상실의불안	292	7	35	20.03	4.03	-.241	-.188
죽음과정의불안	292	7	35	24.65	4.25	-.289	-.189
사후결과의불안	292	6	30	16.00	3.85	.206	-.661

### 3. 일반적 특성, 죽음불안, 우울,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피어슨의 상관계수 값( $r$ )이 .69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표 3. 일반적 특성, 죽음불안, 우울,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종교보유유무	독거기간	자녀수	가족교류빈도	친한 친구수	존재상실불안	죽음과정불안	사후결과불안	우울	생활만족도
성별	1												
연령	-.066	1											
학력	.280**	-.202**	1										
종교 유무	-.373**	.060	-.076	1									
독거기간	-.057	.001	-.027	.043	1								
자녀수	-.106	.236**	-.207**	.078	-.254**	1							
가족교류 빈도	-.253**	.139*	.013	.215**	-.252**	.489**	1						
친한 친구수	-.098	.055	.117*	.216**	-.070	.249**	.248**	1					
존재상실불안	-.001	-.005	-.177**	.136*	-.035	.148*	.200**	.122*	1				
죽음과정불안	-.105	-.089	-.126*	.137*	-.029	-.088	-.070	.019	.270**	1			
사후결과불안	.048	-.152**	-.136*	.067	.058	-.136*	-.114	-.048	.512**	.463**	1		
우울	-.017	-.070	-.113	-.039	-.066	-.107	-.212**	-.257**	-.038	.416**	.194**	1	
생활만족도	-.028	.078	.139*	.022	.062	.139*	.272**	.288**	-.101	-.410**	-.173**	-.689**	1

\*  $p < .05$ , \*\*  $p < .01$ , \*\*\*  $p < .001$

주요변수 중 종속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중에서는 죽음과정의 불안이  $r=-.410(p<.01)$ , 사후결과의 불안이  $r=-.173(p<.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존재상실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우울의  $r=-.689(p<.01)$ 로서 생활만족도에 부정(-)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친한 친구수의  $r=.288(p<.01)$ , 가족교류빈도의  $r=.272(p<.01)$ , 자녀수와 학력의  $r=.139(p<.05)$ 로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낮을수록,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이 낮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가족교류가 많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 우울의 매개효과

독거노인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Baron과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독립변수 전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 다음, 독립변수의 각 하위요인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순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모델1)를 검증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모델2)를, 다음으로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을 매개하는지의 여부(모델3)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MacKinnon 등(2002)에 의한 Sobel 검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 가.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 우울의 영향관계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우울의 매개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수에서 VIF값이 1.6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 우울의 매개효과

변수명	모델1 (일반변수 → 종속)		모델2 (독립 → 종속)		모델3 (독립 → 매개)			모델4 (독립, 매개 → 종속)		
	$\beta$	t	$\beta$	t	$\beta$	t	VIF	$\beta$	t	VIF
성별	.010	.166	.031	.501	-.096	-1.532	1.344	-.040	-.957	1.355
연령	.056	.984	.026	.468	-.013	-.222	1.119	.017	.453	1.120
학력	.117	1.938	.065	1.056	-.010	-.161	1.326	.057	1.402	1.326
종교유무	-.082	-1.361	-.050	-.845	-.010	-.169	1.253	-.058	-1.454	1.254
독거기간_년	.154	2.673**	.149	2.655*	-.136	-2.392*	1.122	.049	1.293	1.145
자녀수	.013	.198	-.007	-.101	.025	.372	1.554	.012	.265	1.554
가족교류빈도	.257	3.827***	.267	4.054***	-.222	-3.327**	1.537	.104	2.311*	1.597
친한친구수	.234	3.992***	.247	4.301***	-.233	-4.000***	1.171	.076	1.922	1.238
죽음불안			-.201	-3.598***	.257	4.548***	1.101	-.012	-.299	1.182
우울								-.736	-18.762***	1.222
R <sup>2</sup>	.167		.204		.182			.647		
Adj R <sup>2</sup>	.144		.178		.155			.634		
F	7.105***		8.021***		6.951***			51.406***		

\*  $p < .05$ , \*\*  $p < .01$ , \*\*\*  $p < .001$

모델1은 일반적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서, 설명력(R<sup>2</sup>값)이 16.7%, F변화량은 7.105( $p < .001$ )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1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일반적 변수 중에서는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가족교류빈도가 많을수록, 독거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2는 모델1에 독립변수를 추가한 모형으로서, 설명력이 20.4%, F변화량은 8.021( $p < .001$ )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1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인 죽음불안에 대한  $\beta$ 값이  $-.201$ ( $p < .001$ )로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변수는 모델1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죽음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로서, 죽음불안의  $\beta$ 값이  $.257$ ( $p < .001$ )로서 정적(+)으로 나타났다.

모델4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투입 결과, 설명력은 64.7%, F변화량은 51.406( $p < .001$ )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울이라는 변수의 투입이 전체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있게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델3에서 독립



변수인 죽음불안의  $\beta$ 값은  $-.012(p>.05)$ 로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우울은  $\beta$ 값이  $-.736(p<.0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우울은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완전매개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일반적 변수는 모델1에서 유의하였던 친한 친구수와 독거기간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인 MacKinnon 등(2002)이 제시한 Sobel 검정값인  $z$ 값은 [그림 1]과 같이  $4.440(p<.001)$ 로 나타남에 따라,  $z > 1.96$  또는  $z < -1.96$ 을 만족하였으며, 이에 우울은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2.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 우울의 매개효과



\*\*\*  $p < .001$

#### 나. 죽음불안의 하위요인과 생활만족도 간 우울의 영향관계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의 하위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우울의 매개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수에서 VIF값이 1.8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델1에서는 설명력( $R^2$ 값)이 33.4%, F변화량은  $12.780(p<.001)$ 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1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인 존재상실의 불안에 대한  $\beta$ 값이  $-.203(p<.01)$ 로서 부정(-)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존재상실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죽음과정의 불안에 대한  $\beta$ 값은  $-.421(p<.001)$ 으로서 부정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다. 일반적 변수 중에서는 독거기간이 길수록, 가족교류가 많을수록,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2에서는 죽음불안의 하위요소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로서, 존재상실에 대한 불안의  $\beta$ 값이 .136( $p < .05$ )으로서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의  $\beta$ 값이 .417( $p < .001$ )으로서 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은 우울에 영향이 없게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투입 결과, 설명력은 66.4%, F변화량은 46.042( $p < .001$ )로 나타남에 따라, 우울이라는 변수의 투입이 전체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 있게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었다. 모델3에서 독립변수인 존재상실의 불안의  $\beta$ 값은 -.011( $p < .05$ )로서 모델1에서의 존재상실의 불안의  $\beta$ 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은  $\beta$ 값이 -.680( $p < .0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은 존재상실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부분매개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모델3에서 독립변수인 죽음과정의 불안의  $\beta$ 값은 -.421( $p < .001$ )로서 모델1에서의 죽음과정의 불안의  $\beta$ 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은  $\beta$ 값이 -.680( $p < .0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은 죽음과정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부분매개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우울은 모델1과 모델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후결과에 대한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변수는 모델1에서 유의하였던 가족교류빈도와 독거기간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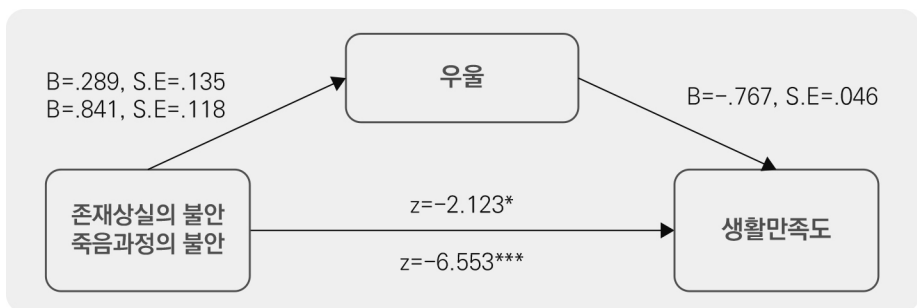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인 MacKinnon 등(2002)이 제시한 Sobel 검정값인  $z$ 값은 [그림 3]과 같이 존재상실의 불안은  $z = -2.123$ ( $p < .05$ )와 죽음과정의 불안의  $z = -6.653$ ( $p < .001$ )로 나타남에 따라,  $z > 1.96$  또는  $z < -1.96$ 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우울은 존재상실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한다는 것과 죽음과정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5. 죽음불안의 하위요인들과 생활만족도 간 우울의 매개효과

변수명	모델1 (독립 → 종속)		모델2 (독립 → 매개)			모델3 (독립, 매개 → 종속)		
	$\beta$	t	$\beta$	t	VIF	$\beta$	t	VIF
성별	-.041	-.707	-.032	-.530	1.385	-.062	-1.519	1.386
연령	.026	.499	-.013	-.248	1.126	.017	.456	1.126
학력	.095	1.679	-.037	-.626	1.333	.070	1.740	1.335
종교보유유무	-.046	-.850	-.014	-.246	1.254	-.056	-1.438	1.254
독거기간_년	.113	2.181*	-.104	-1.927*	1.134	.043	1.151	1.149
자녀수	-.039	-.639	.052	.826	1.574	-.004	-.081	1.578
가족교류빈도	.181	2.922**	-.148	-2.304*	1.620	.081	1.810	1.650
친한친구수	.236	4.455***	-.224	-4.087***	1.180	.084	2.154*	1.251
존재상실의 불안	-.203	-3.316**	.136	2.138*	1.575	-.111	-2.525*	1.601
죽음과정의 불안	-.421	-7.479***	.417	7.148***	1.336	-.138	-3.161**	1.579
사후결과의 불안	-.040	-.623	.051	.761	1.761	-.006	-.122	1.765
우울						-.680	-16.570***	1.399
R <sup>2</sup>	.334		.285			.664		
Adj R <sup>2</sup>	.308		.257			.650		
F	12.780***		10.149***			46.042***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 죽음불안의 하위요인과 생활만족도 간 우울의 매개효과



\*  $p < .05$ , \*\*\*  $p < .001$

## 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 등을 하위 요인으로 하는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부합된 292부를 분석에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인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불안의 하위요소 중 존재상실의 불안과 죽음과정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결과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를 낮춘다는 본 연구결과는 남기민과 정은경(2011), 박선애와 허준수(2012), 정영민(2016)과 동일한 결과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불안 특히 존재상실의 불안과 죽음과정의 불안의 경감은 곧 그들의 생활만족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죽음불안의 낮춤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가설 2인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은 높은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죽음불안은 매개 변수인 우울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불안의 하위요인 중 존재상실의 불안과 죽음과정의 불안은 우울에 정적(+ )인 영향을 보였다. 반면 사후결과의 불안은 우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불안이 우울을 높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여인숙과 김춘경(2005), 오미나와 최외선(2005), 김민아와 양지훈(2015), 김남희 등(201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대표적인 정신건강인 죽음불안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 특히 존재상실의 불안과 죽음과정의 불안의 경감으로 인해 우울이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죽음불안의 낮춤을 통해 그들의 우울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가설 3인 “우울은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존재상실의 불안, 죽음과정의 불안, 사후결과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울은 죽음불안의 하위요소 중 존재상실의 불안 및 죽음과정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울이 생활만족도를 낮춘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현심과 남희수(2010), 사영화와 조성제(2014), 박선희 등(2015), 김홍남 등(2017), 최창석(2017), Mynatt(2004), Onishi 등(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우울의 낮춤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이는 노인의 죽음불안 특히 존재상실의 불안과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울의 낮춤은 그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우울의 낮춤을 통해 그들의 생활에서의 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존재상실의 불안과 죽음과정의 불안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므로,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독거노인가구가 급증하고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실직 등의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6)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6년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은 5년 전인 2011년에 비해 77.8% 증가하였다. 이 중 독거노인이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독거노인의 ‘나 홀로 죽음’을 위한 제도적 부분으로 긴급구조나 보호 장치 등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복지관이나 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면서,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약노인 특히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에 대한 교육의 개발과 운영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단순한 교양교육이 아닌, 죽음불안 특히

존재상실의 불안과 죽음과정의 불안 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죽음불안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후속연구가 많이 이뤄져 독거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해결방안이며,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죽음준비교육을 학교의 정규 교과목에 넣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도 죽음준비교육을 학교의 정규교과에 포함시켜 어릴 때부터 죽음에 따른 불안과 고립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노인만의 문제만이 아닌,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어릴 때부터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생의 귀중함과 유한함을 일깨워 노인의 죽음불안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울이 독거노인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특히 우울은 독거노인의 존재상실의 불안 및 죽음과정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차적으로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죽음불안의 해소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우울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노년기 우울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었다. 이에 노인의 우울의 감소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개입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OECD, 2017).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서울대학교(2017)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수명, 관계수명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의 행복수명은 74.6세인 반면, 평균기대수명은 83.1세로서, 생애의 마지막 8.5년은 우울한 노년을 보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년기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는 우울을 낮출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행복수명 관점에서 우울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건강요소에서 노후에 발생할 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 것이며, 경제요소에서는 현재의 공적 연금에 추가하여 사적 연금이나 저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은 또한 중요한 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은퇴 후 상실감이 커지고 우울한 노년을 보내기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 특히 독거노인이 우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와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노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독감예방접종과 같이 우울증 교육, 검사 및 치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독거노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려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이나 일자리참여는 우울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나 사회단체 등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독거노인의 일과 복지라는 측면은 물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여 독거노인들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하여 전국에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적 변인 선정 시, 사회적 관계망 위주로 변수를 선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건강상태, 생활수준, 경제상태 등의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거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죽음불안, 우울만을 선택하여 분석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영적 안녕감, 자아 통합감, 경제적, 건강적, 정신적 노후준비 등)을 포함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일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연구조사로 정확한 생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 면담이나 인터뷰를 통한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권양순, 송정아. (2010). 영적 건강과 자이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독교상담학회지, 11, pp.53-80.
- 권영은, 김선영. (2016). 독거노인의 죽음불안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3), pp.262-269.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pp.61-76.
- 기백석. (1996). 한국 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2), pp.298-307.
- 김경호, 김지훈. (2008). 노인의 우울이 삶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자이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4), pp.95-116.
- 김남희, 김지혜, 이해림, 윤명숙. (2016). 빈곤 노인의 죽음불안, 건강상태, 가족응집성과 문제증주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7(2), pp.15-33.
- 김문옥. (2014). 독거노인이 우울에 미치는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민아, 양지훈. (2015). 여성노인 우울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3), pp.136-165.
- 김성희, 송양민. (2013). 노인죽음교육의 효과 분석: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죽음불안의 매개역할. 보건사회연구, 33(1), pp.190-219.
- 김연숙, 김지미. (2009). 노인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죽음불안: 죽음불안의 세부영역을 중심으로. 노인간호학회지, 29(1), pp.275-289.
- 김연하. (2016). 재가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생태학 이론을 바탕으로.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김주연. (2017). 한국 노인의 가구형태와 가구 내 자원분포. 한국인구학, 40(1).pp.1-28.
- 김흥남, 차은진, 김경호. (2017).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 21, 8(2), pp.457-480.



- 남기민, 정은경. (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학연구, 52, pp.325-348.
- 민기채. (2011). 조손가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조손가구,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비교. 한국노년학, 31(2), pp.321-341.
- 박선애, 허준수. (2012). 노인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pp.59-99.
- 박선애. (2016). 노인의 기능적 능력과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박선희, 서순림, 김홍순. (2015). 여성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 영향요인. 동서간호학연구지, 21(2), pp.119-125.
- 박재홍, 정지홍. (2010). 독거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47, pp.309-330.
- 박지영. (2007). 노인자살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모과 응두리에서의 비상.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사영화, 조성재. (2014).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시설만족도, 불안, 자이존증감, 스트레스,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2), pp.6998-7004.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서울대학교. (2017). 행복수명보고서. 서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서울대학교
- 서연숙. (2015).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35(1), pp.99-117.
- 서인균, 이연실. (2015). 노인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68, pp.7-35.
- 서혜경. (1987). 한미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7, pp.39-60.
- 서혜경. (2007). 죽음불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4(1), pp.109-125.
- 신경림, 김정선. (2003). 노인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5(1), pp.29-37.

- 신경안. (2015). 독거노인의 자아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육구 매개 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양희. (2017). 한미 노인의 주관적 연령 인식과 노화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 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여인숙, 김춘경. (2005). 노년기의 죽음불안과 사회적 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 pp.75-101.
- 여인숙, 김춘경. (2007). 노년기 우울과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생애 회고적 이야기치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pp.113-128.
- 오미나, 최외선. (2005).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죽음불안 및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3), pp.105-118.
- 오미나. (2003).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죽음불안 및 우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윤정애, 강지수, 배명진, 이나영, 이채민, 전우진. (2016).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비교.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8(2), pp.63-69.
- 이묘숙. (2010). 노인의 우울 수준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생활만족도 조절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pp.241-266.
- 이봉재, 오윤진. (2008).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6(10), pp.49-57.
- 이현심, 남희수. (2010). 농촌노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여주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7(4), pp.957-984.
- 이혜원. (199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임승희, 노승현. (2011).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연구: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1), pp.1-14.
- 장덕희, 이승민. (2007). 가족요인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37, pp.89-110.
- 정영민. (2016). 노인의 영적 안녕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죽음불안의 매개효과와 연금

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조계화, 송병숙. (2012). 가족응집력과 주관적 행복감이 한국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5), pp.680-688.
- 조성자, 김병석. (2014). 노년기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우울, 자기효능감, 마인풀니스(mindfulness)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4(1), pp.49-71.
- 최윤진. (2009). 연령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최창석. (2017).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통계청. (2016). 장래인구 추계. 대전: 통계청.
- 하재민. (2016). 노인의 고독감과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행정자치부. (2017). 2017년 8월말 인구통계. 세종: 행정자치부.
- 허준수. (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pp.227-247.
- Baron, R.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1173-1182.
- Collett, L. J.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72, pp.179-181.
- Damm, P. L. (1993).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death anxiety, life satisfaction, and locus-ocontrol*. The Wright Institute.
- Hickson, J., Housely, W. F. & Boyle, C. (1988). The relationship of locus of control, age, and sex to life satisfaction and death anxiety in older per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0, pp.191-199.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pp.83-104.
- Mynatt, S. L. (2004). Depression in the older adults: Recognition and nursing intervention. *Tennessee Nurses*, 67(4), pp.8-10.
- Neugarten, B., Havighust, R. & Tobin,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pp.134-143.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http://www.oecd.org/social/how-s-life-2308\\_9679.htm](http://www.oecd.org/social/how-s-life-2308_9679.htm).에서 2017.11.15. 인출.
- Onishi, C., Yuasa, K., Sei, M., Ewis, A. A., Nakano., T., Munakata, H., & Nakahori, Y. (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Japanese elderly women attending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 facilities. *The Journal of Medical Investigation*, 57, pp.69-80.
- Shelly, K. (2012). *Death*.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Sundriyal, R., & Kumar, R. (2013),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ed and unmarried women. *IOSR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6(3), pp.33-36.
- Yesavage, J. A., & Sheikh, J. I. (1986). 9/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Clinical Gerontologist*, 5(1), pp.165-173.

김기태는 삼육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으며, 현재 시조사 월간 <가정과 건강> 편집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 분야이며, 현재 노인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E-mail: klee0303@hanmail.net)

송진영은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결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사회복지 및 보건 사회 등의 실천영역 등이다. 저서로는 <사회복지조사론>, <사례관리론> 등이 있다.

(E-mail: jysong4@daum.net)

정중화는 일본사회사업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삼육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장이며 장애인과 노인의 케어 서비스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저서로는 <한국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와 개발> <특수교육학 개론>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mail: welfare36@daum.net)

# The Effect of Death Anxie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Kim, Gi Tae**

[Sahmyook University]

**Song, Jin Yeong**

[Sungkyul University]

**Chung, Jong Hwa**

[Sahmy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eath anxiety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291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Seoul were analyz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death anxiety of elderly persons living alone has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2) The dying process anxiety of elderly living alone has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anxiety of existential loss in the elderly living alone has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after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showed no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 anxiety about dying process and the anxiety of existential loss in the elderly living alone were found to lower their life satisfaction, but their death anxiety was no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3) Depression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the anxiety of existential loss and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anxiety about the process of dying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rough reducing the depression or death anxiety.

---

**Keywords:** Elderly People Living Alone, Death Anxiety,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Mediating Effect